

풍암호수 수질개선 갈등... '절충안' 마련될까

#일주_이슈

이번주 주민협의체-강 시장 만남
'원형보존·수량조절' 입장차 팽팽
市 '수심·수면적 늘리는 안' 검토
아파트 분양수의 초과분 환수 주목

광주 풍암호수 수질개선을 두고 광주시와 주민 간 갈등이 불거진 가운데 이번 주중에 주민협의체와 강기정 광주시장이 만나 양측의 입장차를 줄일 수 있을지 주목된다.

원형보존안과 수량조절안을 절충한 방안 필요성과 함께 수익자부담원칙 아래

민간사업자에게 수질개선 비용을 추가 부담시켜야 한다는 주장도 나오고 있다.

18일 광주시에 따르면 이번주 내에 강기정 광주시장과 '풍암호수 수질개선 주민협의체' (주민협의체)가 만나 최종 입장을 확인할 계획이다.

앞서 지난 8일 강 시장은 "원형보존을 전제로 한 수질개선을 해달라는 주민협의체의 요구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당초 주민들의 의견을 수용하겠다는 입장을 번복한 바 있다. 광주시는 수질 상황이 되지 않으면 비공원사업의 준공을 할 수 없다는 점과 기계장치를 활용하면 과도한 비용이 투입된다는 점을 들어 원형보존안을 수용하지 않겠다고 밝혔다. 특히 "오염우수와 서장천에서 유입되는 물로는 호수 수질을

개선할 수 없다"며 담수 규모를 줄이고 지하수를 유지 용수로 사용해 풍암호를 인공 호수공원으로 만들겠다는 방침이다.

주민협의체는 비용을 절감하면서도 충분히 원형을 보존한 상태에서 수질개선이 가능하다고 밝힌 업체 10여곳의 안을 검토해 광주시에 제안했으나 광주시는 "녹조 제거효과나 환경영향평가 등 실효성이 검증되지 않아 반영할 수 없다"고 거부했다.

수익자부담원칙에 따라 민간사업자인 SPC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수질개선 비용을 더욱 부담하도록 해야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현재 비공원사업부지에 대규모 아파트 분양을 계획하고 있는 민간사업자가 얻는 수익에서 유지비 등을 거둬들여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됐다.

광주시는 "중앙공원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의 공원사업비 1188억을 기부채납 받기로 한 상황에서 추가로 민간사업자에게 비용을 거두는 것은 법적 근거가 없어 어렵다"고 밝힌 바 있다. 다만 광주시는 "민간사업자가 아파트 분양 등으로 인한 수익이 예상보다 초과됐을 경우 초과분을 환수할 수 있으며, 이를 수질개선 비용으로 쓸 수 있다"고 전했다.

양측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며 갈등이 해결될 실마리가 보이지 않자 광주시는 수량조절안의 목표 수심이나 수면적을 늘리는 절충안을 검토 중이다. 기존 목표로 한 최대 수심 1.5m를 2~3m 내외로 다시 조정하는 방안 등이 검토되고 있는 것으

로 알려졌다.

광주시는 "절충안이 마련되더라도 수질 개선을 위해 오염우수를 매립된 관로를 따라 배출시키고 지하수를 유지 용수로 활용하는 방식은 불가피하다"며 "주민들의 의견도 충분히 고려해 수질개선 대책을 논의하고 있다"고 밝혔다.

▶관련기사 2·3면

김혜인 기자

광주시사람들 (532/1000)

김 용 은
광주시경기협회 이사

▶관련기사 17면



"을 수능 난이도 어떻게..."

尹 발언에 입시계 당혹감 확산
학부모·진학교사 "수험생 혼란"

수능이 150여일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윤석열 대통령의 '교육과정 내 출제' 발언 이후 교육 현장에서는 수능 난이도 하락에 따른 상위권 변별력 등을 걱정하는 목소리가 나온다.

18일 교육부 등에 따르면, 지난 15일 윤 대통령은 이주호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에게 "과도한 배경지식을 요구하거나 대학 전공 수준의 비문학 문항 등 교육 교과과정(교육과정)에서 다루지 않는 문제를 다루면 무조건 사교육에 의존한다"며 "교육과정 외 문제는 수능출제에서 배제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앞서 교육부는 이같은 출제 기준을 6월 모의평가부터 반영할 것을 한국교육과정평가원과 대입 담당 부서에 지시한 바 있다. 하지만 6월 모의평가 가채점 결과 분석을 통해 일부 문항이 교육과정 범위를

벗어난 사실이 확인됐고, 교육부는 평가원을 대상으로 감사에 나서겠다는 방침이다.

지역 교육현장에서는 올해 수능 난이도 하락에 대한 우려 목소리가 높다.

광주의 고3 학부모 정모씨는 "혹시나 물 수능이 돼 자녀 입시에 어려움이 생길까 걱정된다"며 "수능이 150일 남짓 남은 시점에서 누구를 위한 발표인지 모르겠다. 대통령이 수능 난이도를 언급하는 게 지나친 개입이라는 생각도 든다"고 말했다.

정훈탁 광주시교육청 진로진학과 장학관은 "(수능의 불공정성 등에 대한 지적 측면에서) 대통령의 발언 취지에는 공감하나 추진 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며 "3월 초부터 꾸준한 방향성을 갖고 난이도 조절을 해온 게 아니라, 대통령의 말 한마디에 출제 기준이 변화하는 모양새는 수험생들에게 큰 혼란을 줄 수 있다"고 지적했다.

이러 "특히 출제 범위에 대한 언급이 우



제17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 제17회 무등산 사랑 등반대회가 지난 17일 광주 동구 문빈정사 일원에서 열려 참가자들이 신록으로 우거진 산길을 따라 힘찬 등반을 시작하고 있다. 이번 등반대회는 전남일보와 (사)전일엔컬스가 주최·주관하고 광주시와 전남도, 광주시교육청, 화순군, 담양군, 전남대무등산권지질관광사업단이 후원했다. ▶관련기사 5면

나건호 기자

려된다"며 "9월6일 치르는 모의평가에서는 비문학의 융합형 지문이 줄어들어 국어가

쉬워질 것으로 예상된다. 9월 모의평가의 난이도는 시험 닷새 뒤부터 시작되는 수

시 원서 접수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양기람 기자





더 특별하게 설계합니다
더 아름답게 짓고 있습니다
클래스, 그 이상을 넘어

—

Beyond the CLASS
중흥S-클래스